

시티투어를 활용한 제주시 구도심권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이진희* · 김구**

<차례>

- I. 서론
- II. 도시관광에 대한 이론적 고찰
 - 1. 도시관광의 개념과 특징
 - 2. 도시관광의 구조와 구성요소
 - 3. 시티투어
- III. 시티투어를 활용한 제주시 구도심권 관광활성화 방안
 - 1. 제주시 구도심권 현황 분석
 - 2. 시티투어를 활용한 제주시 구도심권 관광활성화 방안
- IV. 결론

국문요약

1995년부터 실시된 지방자치체로 중앙정부의 지원과 통제에 순응하던 지자체들이 지역성장의 책임을 맡게 되었고, 일반기업들처럼 다른 지역들과의 경쟁에서 이익을 내야 하는 입장에 처하게 되었다. 지역주민들의 선거에 의해서 선출된 민선단체장들은 주민들의 경제적 열망에 부응해야 하는 정치적 부담을 안게 되었다.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기 지역의 침체된 곳을 활성화시켜야 하는 과제에 직면하게 되었지만, 서울특별시와 5대 광역시 및 경기도를 제외한 대

* 제주대학교 경상대학 관광개발학과 교수

** 제주대학교 경상대학 관광개발학과 석사과정

부분의 지자체들이 평균 30% 안팎의 재정자립도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지역은 손쉽고, 비용이 적게 드는 관광이라는 상품을 이용하여 고유성과 차별성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지역경쟁력을 추구하는 상황이 되었다.(이진희, 2006)

도시는 생명체와 같아서 늘 살아서 움직이고 있다. 과거 30-40년 전만하여도 제주시 상권의 중심부이었던 구도심지역이 쇠퇴하면서 일도지역이나 연동지역이 부각되고 있는 실정이다. 역사문화자원이 풍부한 관덕로와 중앙로 일대의 구시가지는 교통상황의 변화, 주거생활의 변화, 쇼핑환경의 변화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공동화 되어가고, 상권이 쇠퇴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제주시 구도심권을 중심으로 도시관광을 도입하여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였다.

주제어 : 구도심지역, 도시관광, 제주시, 활성화

I. 서론

국토의 균형발전과 관련해서 나타나는 하나의 문제는 같은 지역 내에서도 상대적으로 성장이 집중되는 곳과 반대인 곳이 발생함으로써 지역 내 불균형 발전이 유발되는 현상이다. 문제지역의 유형으로는 낙후지역, 침체지역, 과밀지역이 있다. 낙후지역과 침체지역은 개발의 부진으로 인한 낮은 소득수준, 높은 실업률, 과도한 인구유출 등이 문제인데 과밀지역은 과도하게 인구와 산업이 집중되고, 지나친 성장이 문제이다. 침체지역은 과거에는 산업활동이 활발했으나 현재는 경제적으로 쇠퇴하고 사양화하고 있는 지역이다. 지역적 원인으로는 중심시장이 쇠퇴하거나 이동할 경우, 과거에는 중심시장에 대한 입지적 우위로 인해 번성하던 지역이 중심시장의 주변지역으로 전락함으로써 침체하게 되는 경우이다(이진희, 2005: 21-22).

도시내에서 구도심이 침체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도시관광이 활용되고 있다. 유럽의 도시들이 1980년대 이후 제조산업의 쇠퇴에 따른 경기불황이나 고실업에 직면하면서 장소마케팅을 활용한 도시관광을 성장산업으로 채택한 것을 찾아볼 수 있다(이진희, 2006b: 23-31).

제주시 주거지와 상권의 변화를 분석하면 1960년대 이전에는 제주성을 중심으로 주거지가 형성되면서 관덕로와 칠성로, 동문로 일대가 각종 문화공간과 상가, 관공서로 밀집되어 있어 제주상권의 원조지로 인정받아 왔다(제주시, 2005:142). 이후 1970년대에는 중앙로가 개설되면서 동문시장과 중앙로를 중심으로 한 일주도로에 상권이 형성되었으며 제주대학교가 위치해 있던 용담동과 서문시장 일대는 대학가로 발전하였다. 그리고 시외버스터미널이 제주도청이 있는 광양으로 이전하면서 광양로터리 지역도 주요 상권으로 부각되기 시작하였다(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2006: 59).

1970년대 말부터 연동신시가지와 일도지구 택지개발, 중앙 지하상가 건설 등으로 주요 상권이 연동과 중앙로로 2원화 되었다. 1980년대에는 제주도청 자리에 제주시청이 이전하였고, 아라동으로 제주대학교가 이전하면서 광양로터리와 시청 후문 지역이 새로운 대학가로 부상하였다. 특히 관광산업의 발달과 제주도청 등 관광서들이 신제주 지역으로 이전하면서 신제주는 신흥 상권지역으로 자리를 잡아갔다(제주시, 2005: 144).

1990년대 이후에는 일도·이도, 노형, 삼양, 이호 등 제주시 외곽지역에 대규모 택지개발이 이루어지면서 구도심권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였고, 대규모 마트들이 생겨나면서 구도심권 상권은 침체일로를 걷고 있다. 노형과 연동의 대규모 택지개발과 일도·이도지구 개발로 인해 이들 지역은 새로운 주거지와 상권으로 부상하고 있다(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2006: 86, 100, 114).

이처럼 옛날에는 제주시민들이 주로 제주성을 중심으로 거주하면서 농업이나 어업, 상업에 종사하면서 살았지만 지금은 직업이 다양화되고, 생활양식과 주거형태의 변화로 인해 주거지의 이동이 진행되었고, 상권도 주거지 이동에 따라 변화되어 왔다.

주거지 이동의 주요한 이유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첫째, 교통상황의 변화이다. 옛날에는 걸어 다니고, 우마차의 이용이 고작이었으므로 주택가의 도로 폭이 좁고 불규칙하였다. 현재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동차를 이용하므로 주차장이 없고, 주택으로 자동차의 접근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으므로 차량이용에 편리한 곳으로 이동하는 것이다.

둘째, 주거생활의 변화이다. 옛날에는 산지천에서 물을 길어다 먹고 재래식 화장실을 이용하고, 목욕을 자주하지 않았고, 재래식 부엌을 사용하였다. 현재에는 매일 목욕하고, 수세식 화장실을 이용하므로 주거 환경이 편리한 곳으로 이동하고 있다.

셋째, 쇼핑환경의 변화이다. 옛날에는 재래식 시장이나 오일장을 이용하였지만 현재는 대형할인점을 주로 이용하므로 쇼핑환경이 좋은 곳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사유로 인하여 역사문화자원이 풍부한 관덕로와 중양로 일대의 구시가지는 공동화 되어가고, 상권이 쇠퇴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제주시 구도심권을 중심으로 도시관광의 가능성을 검토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티투어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도시관광과 시티투어에 대한 개념을 이론적으로 정립하고, 국내외의 시티투어에 대한 사례분석을 통하여 제주시 구도심권의 매력성을 살릴 수 있는 시티투어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II. 도시관광에 대한 이론적 고찰

1. 도시관광의 개념과 특징

1) 도시관광의 개념

도시는 본질적으로 인간의 사회적, 문화적 표현인 동시에 인류가 모여 살기 위해 만들어 낸 여러 생활양식 중에서 가장 대표적이고 지배적인 주거형태이며 오랜 역사 속에서 형성된 고유한 분위기가 있고, 추억이 있으며, 일정한 문화와 풍습 속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이 응축되어 있는 곳으로서 특징적인 주체가 살아 움직이는 곳이다(신동주, 2002: 324). 또한 도시는 규모나 발달정도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인구나 상품, 자본, 교통, 문화, 역사의 집산지로서 상업 및 주거활동은 물론 여가 및 관광, 문화, 교통 활동 등 인간의 이동과 교류가 집중되는 곳이다. 이런 점에서 현대사회에서의 도시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높은 것이다(정재선, 1994: 59).

도시관광은 관광공간에 있어서 도시가 큰 개념의 관광대상이 되며 도시 내에 있는 여러 관광자원들은 구체적인 관광대상이 된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도시관광에 관한 연구가 미약한 것이 사실이다. 즉, 여러 관광자원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는 일련의 범위의 관광공간을 하나의 통합적인 개념으로 이해하기 보다는 각각의 종류의 관광자원에 대한 연구들이 대부분이다(김 욱, 2004: 10). 하지만 도시관광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도시의 독특한 환경과 관련하여 방문객을 끌어들이 수 있는 복합체로서 도시관광은 관광매력요인으로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노은정, 2006: 8).

즉, 도시관광이란 도시내부 혹은 도시 외부인에 의해서 도시의 각종

매력물과 편의시설 및 도시의 이미지를 관광대상으로 하여 도시내에서 발생하는 관광현상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김향자·유지윤, 2000; 5). 이상과 같은 도시관광에 대한 학자들의 정의를 요약하면 다음 <표 2-1>과 같다.

<표 2-1> 도시관광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

학 자	정 의
김일룡 (1983)	도시라는 공간 및 도시가 가진 풍물을 모든 감각기관으로 확인하고 도시가 발하는 광(光)·음(音)·상(像)·향(香)에 이르기까지, 지역이나 장소의 지각적 성질을 스스로의 오감을 통해서 실제 체험하고 지식화 혹은 정보화하는 행위
Murphy (1985)	도시적 환경 속에서 발생하는 관광 즉, 도시환경 속에서 관광객, 관광대상, 관광기업과 정부, 도시민 사이의 상호작용 결과로 발생하는 관계와 현상의 총체로 정의
Law (1993)	독특한 환경과 관련이 있으며, 도시가 방문객을 끌어들이 수 있는 것은 활동들의 복합체이기 때문임. 도시관광객들은 부수적인 목적들을 포함한 동기를 갖고 있어 도시가 방문할 가치가 있다고 여겨지는 많은 흡인요소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도시를 방문하는 것임.
김향자 · 유지윤 (1999)	도시관광객과 도시의 관광대상, 관광기업, 관련정부, 도시거주민과의 상호작용과 현상으로 도시민 혹은 도시 외부인에 의해서 도시의 각종 매력물, 편의시설 및 도시의 이미지를 관광대상으로 하여 도시내에서 발생하는 관광현상
이진희 (2006b)	도시관광은 도시의 복합적 기능을 배경(multifunctional context)으로 도시 속에서 관광활동이 이루어지며, 도시생활환경 자체(urban life environment)가 주요한 매력의 대상이 됨.

자료 : 선행연구를 토대로 연구자가 재구성.

2) 도시관광의 특징

도시관광은 도시의 이미지를 관광대상으로 하여 도시내에 발생하는 관광현상으로 일반적으로 대규모 관광지의 배후지이거나 유동 관광인구가 많고 교통접근체계의 발달이 잘 이루어진 곳을 주 대상으로 한다. 뿐만 아니라 유·무형의 관광자원과 전시장, 쇼핑시설을 고루 갖추고

있고 관광안내 기능도 쉽게 받을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노은정, 2006: 9). 도시관광과 도시관광객들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 <표 2-2>와 같다.

<표 2-2> 도시관광과 도시관광객들의 특징

구분	특징
도시관광	도시의 입지가 중요한 역할을 함. 도시의 역사적 건축물, 기념물 등 역사관광자원이 중요함. 도시의 특정한 매력물은 대표적 유인력과 상징력으로 작용함. 도시의 행정적 경계가 없어지며, 주변지역과의 연계관계가 중요함. 도시기반시설 및 대규모 인공매력물의 중요성이 높음. 도시관광의 총 매력은 개별 구성인들의 매력의 단순합보다 큼. 도시내의 다양한 관광자원들이 집중되기 보다는 분산되어 분포함.
도시관광객	동기는 복수목적 또는 복수동기이며 비즈니스와 역사문화관광 비중이 높음. 다른 유형의 관광객들에 비해 계절적 영향을 적게 받음. 체재기간은 다른 유형의 관광에 비해 짧음. 연령분포는 다른 유형의 관광에 비해 다양함. 소득 및 소비수준이 다른 유형의 관광에 비해 높음.

자료 : 박경렬, 「관광목적지로서 도시관광이미지 구성요인 도출 및 측정척도 개발」,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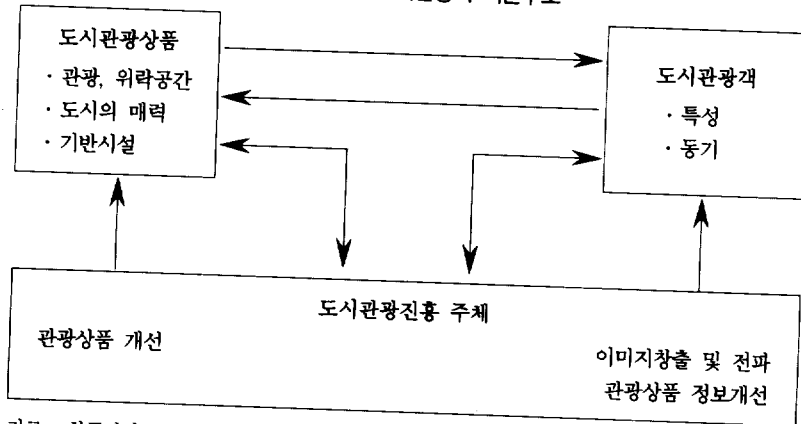
2. 도시관광의 구조와 구성요소

1) 도시관광의 구조

도시관광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도시관광이라는 상품과 그 상품에 대한 관광시장이 존재하여야 하고, 도시관광의 진흥을 위해서는 진흥주체가 필요하다. 도시관광상품은 1차적으로 교통과 숙박시설 이외에도 도시의 문화적 시설, 위락적 시설, 이벤트, 회의, 축제, 전시회, 박람회, 쇼핑 관광거리 등을 위한 다양한 공간과 도시의 물리적, 사회·문화적 매력의 효과적 연출, 관광정보 안내시스템의 구축 등을 포함하고 있다(한국관광공사, 1992).

Berg와 Borg, Meer(1995)는 도시관광의 구조를 관광상품 요소와 도시관광 요소로 구분하였으며 관광상품에 대한 내부적 접근성과 도시자체의 외부적 접근성이 매력성을 결정짓는 중요요소라고 보았다(김민수, 2000: 8 재인용).

[그림 2-1] 도시관광의 기본구조



자료 : 한국관광공사, 『인천해안권 관광개발계획』 : 김향자·유지운(2000), 「도시관광 진흥방안 연구」, 한국관광연구원, 1992: 25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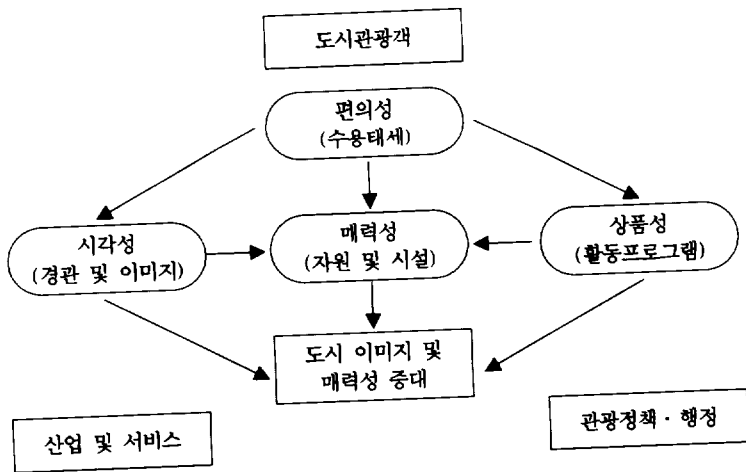
2) 도시관광 활성화를 위한 요소

도시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도시관광의 구성요소와 기능적 매카니즘을 바탕으로 도시관광의 구성체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도시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외부 유인력을 극대화하도록 하며, 이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시관광 분석 구조를 설정한다. 또한 도시관광의 육성방안은 도시들이 추진하고 있는 관광관련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지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설정한다. 특히 도시관광에 대해 합리적이고 실천적인 육성방안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제주시의 실태파악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이러한 실태파악을 위하여 분석구조가 제시되어야 한다. 이러한 분석구조는 도시관광의 운영 및 육성 문제점을 파악하고 육성방안을 제시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김향자·유지운, 2000: 27).

김향자·유지운(2000)은 도시관광의 구조를 내부요인과 외부요인으로 구분하여 내부요인을 시각성(경관 및 이미지), 매력성(자원 및 시설), 상품성(활동 프로그램), 편의성(관광수용태세) 등으로 설정하고, 외부요인을 도시 관광객, 관광산업체(산업 및 서비스), 관광정책 및 행정 등으로 설정하였다.

[그림 2-2] 도시관광의 분석구조



주) 내부요인

- 시각성(경관 및 이미지) : 미적, 역사적 쾌적한 건물 및 거리, 도시경관 및 환경, 도시 이미지
- 매력성(자원 및 시설) : 도시내 매력시설, 문화자원, 스포츠 시설, 관광쇼핑시설, 위락시설 등
- 상품성(활동프로그램) : 자연·문화자원, 축제 및 이벤트, 향토음식, 쇼핑, 야간관광 활동 등
- 편의성(수용태세) : 관광안내정보, 관광숙박시설, 컨벤션센터, 관광교통시설, 관광편의시설

외부요인

- 도시관광객 : 휴가관광, 비즈니스 관광, 국제회의관광, 이벤트 관광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산업·서비스 : 여행사, 호텔, 관광종사원의 자질, 관광사업체
- 관광정책·행정 : 제도적 서비스(산업지원, 기반시설 정비)를 위한 제도 및 촉진정책

자료 : 김향자·유지윤, 「도시관광 진흥방안 연구」, 한국관광연구원, 2000.

3. 시티투어

1) 시티투어의 개념과 구성요소

도시관광의 특징 중 하나인 시티투어는 도시관광의 관광편의를 도모하고 도시관광의 활성화를 위해 물적, 비 물적 도시관광자원을 이용한 다양한 관광상품의 개발과 관광행위를 촉진시키는 문화관광의 한 형태이다. 시티투어는 도시관광의 핵심적인 요소로서 개인여행자에게 인기 있는 관광의 한 유형이며 종합적인 관광 활성화 대책으로서 세계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이것은 개인 여행자의 여행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대안이 된다(서울시정개발연구원, 1995: 285~287).

시티투어는 관광기업인 관광여행사가 관광객을 대상으로 차량, 선박, 항공 등의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관광여행사가 위치한 도시나 인근지역을 대상으로 일정한 틀에 짜인 관광프로그램을 마련하고 방문지에 대한 관광안내를 하며 정기적으로 운영하는 관광여행을 말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의해 시에서 자체적으로 해당 시의 이미지 제고나 관광수익 확보를 위해서 운영되고 있는 시티투어프로그램이 대부분이다(김 옥, 2004: 10~11). 일반적으로 시티투어의 관광시간은 반일 또는 전일로 운영되고 있으며 시티투어의 교통수단으로는 차내 스피커와 비디오 같은 방송 장비가 잘 갖추어진 버스가 주로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도시관광 활성화의 기본요건인 시티투어의 기본적

구성요인은 크게 6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박대한, 2000: 5~7).

(1) 관광자원의 매력성

시티투어가 구성되기 위해서는 상품개발 이전에 매력적인 관광자원이 확보되어야 한다. 관광자원은 관광지를 구성하는 본질적인 요소로서 관광객의 관광욕구를 충족시켜 줄 뿐만 아니라 관광지역의 지리적 특성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어서 지금까지 관광 지리학 분야의 중요한 연구주제로 다루어져 왔다. 이제 관광자원은 단순히 보고 즐기는 대상이 아니라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사고를 기초로 이해하고 관찰하는 현장교육의 대상으로 발전하고 있다(김병문, 1990: 24). 관광자원의 확보는 민간 기업이 할 수 있는 측면과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측면이 존재한다. 관광자원은 기본적으로 접근성, 매력성, 이미지, 시설, 하부구조와 유형 등에 의해서 가치가 높아진다. 관광자원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색다른 경험이 가능한 여건이 조성되어야 하고, 동시에 접근성과 경제성이 충족되어야 하며 관광객에게 원하는 혜택이 제공되어야 한다(서태양, 1994: 20~22).

(2) 시티투어버스

세계적인 관광의 흐름은 정적인 관광에서 동적인 관광으로 변하고 있다. 이에 대비하여 주요 관광명소를 체계적으로 연결, 효율적인 관광이 되기 위해선 시티투어버스가 필수적이다. 도시의 관광환경은 자연자원에 기초하고 있지 않으므로 자연관광을 할 때보다 관광객의 피로는 배가 된다. 시티투어는 기본적으로 편안함과 안락함이 있어야 하므로 시티투어버스의 고급화는 필수적인 요인이다. 또한 도시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차량이 자기 나름대로 색깔을 연출하고 있기 때문에 시티투어

가 도시관광의 매력물이 되기 위해서는 차별화된 외형으로 시티투어의 이미지를 부각시켜야 한다.

(3) 전문 안내원

도시는 다양한 문화공간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관광객은 단순히 보는 것만으로는 그 도시를 이해할 수 없다. 이를 위해 시내 주요 관광지와 도시의 역사적, 문화적 흐름을 종합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가이드가 확보되어야 한다. 시티투어의 성패는 관광안내원에 의해서 결정된다. 아무리 훌륭한 관광프로그램 또는 관광상품이 만들어져도 이 프로그램의 성공과 실패는 관광안내원이 얼마나 맡은 바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이명수, 1995: 42).

전문 안내원의 중요한 역할은 첫째, 문화와 역사 등 관광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이 있어야 한다. 둘째, 외국어를 능숙하게 구사해 시티투어를 하는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언어소통의 불편함을 느끼게 해서는 안 된다. 셋째, 항상 친절한 서비스 자세를 유지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시티투어의 정해진 프로그램의 조건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를 이행해야 한다.

(4) 시티투어의 정례화

시티투어가 도시관광의 매력요인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정례화가 되어야 한다. 정례화가 되지 못하면 시티투어는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게 되며, 이용자의 구매 욕구 또한 감소하게 될 것이다. 시티투어의 정례화를 통하여 고객에 대한 시티투어의 인지도를 높여야 한다.

(5) 편리한 접근성

시티투어는 장기간의 여행이 아니라 대부분 단기간의 짧은 여행이다. 단기여행은 장기여행과는 달리 여행자의 준비태세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이며, 편리한 접근성의 확보는 활성화의 전제가 된다(박석희, 1994: 203). 기존교통체계의 개선 및 다양한 신규교통시설 및 수단의 도입으로 관광객 접근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6) 체계적인 홍보

시티투어의 프로그램 개발도 중요하지만 이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관광객에게 전달하는 가는 현실적으로 이미지 전략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안내책자, 브로슈어, 팸플렛 등을 제작하고 있으나 적재적소에 비치되어 활용되지 못함으로 인해 실제 관광객들은 충분한 관광안내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기존의 안내물 중심의 홍보체계로는 역동적인 관광객에게 현장에서 필요한 정보를 제때에 제공해 주기 힘들다. 따라서 홍보수단의 다양화와 보다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홍보기법을 모색할 필요성이 크다.

2) 시티투어 사례

(1) 외국 도시관광과 시티투어의 사례

① 영국 런던의 시티투어(영국관광청, 1995; 정근화, 1997 재인용).

2천년 고도 런던은 다 문화적 도시로써 동쪽은 이스트엔드로 서민적 분위기를 접할 수 있고, 서쪽은 웨스트엔드로 귀족적이고 화려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어 대부분의 관광지가 이곳에 집중되어 있다(www.visitbritain.com; 노은정, 2006).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는 런던의 전

통적인 시티투어는 전망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 뚜껑 없는 2층 버스와 각종의 최고급 버스를 사용하고 있다. 관광안내원은 런던시 관광국이 시행하는 관광가이드 시험에 합격해야만 런던 시티투어를 안내할 수 있으며 관광안내원은 런던시가 발급한 청색 배지를 착용해야만 한다. 1951년 영국축제로부터 시작된 시티투어는 세계에서 가장 큰 시티투어 전문여행사를 가지고 있으며, 세계 여러 언어로 기본적인 영국을 소개하고 관광객의 선택과 유연성에 따라 90개의 승·하차장에서 자유롭게 관광할 수 있게 도와준다.

② 일본의 시티투어(일본하토버스, 1997; 박대한, 2000 재인용)

일본의 수도인 도쿄는 행정구역상 23개의 구와 위성도시, 도쿄 만 남쪽의 여러 섬들로 이루어졌으며 이 가운데 도쿄 시에 해당되는 부분은 토쿠나이 23구이다. 도쿄는 일본의 과거와 현재가 한자리에 모여 있으면서 조화를 이루고 있다. 일본의 비즈니스 중심지인 마루노우치, 유흥가인 아카사카와 롯본기, 쇼핑의 중심지인 긴자, 시부야, 신주쿠, 그리고 전통적인 분위기의 아사쿠사 등이 공존하고 있다. 동경의 시티투어는 정례화와 시간엄수로 유명한데 손님이 1명이라도 있으면 정해진 시간에 출발을 보장하고 있으며 이것이 오히려 도시관광의 매력물로 정착되었다. 시티투어는 민간과 시가 공동출자한 독립법인인 (주)하토버스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시 차원에서 효율적인 관리가 용이하고 시티투어 이미지를 고정화 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다.

③ 싱가포르의 시티투어(싱가포르관광진흥청, 2000; 박대한, 2000 재인용)

싱가포르의 시티투어는 다양한 상품, 고품질 서비스, 그리고 체계적인 홍보 등에 힘입어 개인 여행자가 원하는 다양한 여행욕구를 아무런 불

편 없이 충족할 수 있을 정도로 시티투어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운영 실태에 대한 특성으로는 상품의 다양성과 야간관광의 활성화, 유능한 가이드의 확보, 편리한 접근성을 들 수 있다. 특히 야간관광에서 유럽양식의 정원을 재현하고 조명과 음악에 맞춰 분수가 춤을 추는 음악분수 쇼를 저녁에 공연함으로써 야간 볼거리를 관광객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④ 예술가를 주제로 한 덴마크 오펜세(김효정, 2005 재인용)

오펜세는 덴마크에서 인구 150만명의 세 번째로 큰 도시이지만 무엇보다 크리스찬 안데르센의 고향으로 유명한 곳이다. 덴마크 제1의 철강산업도시였던 오펜세는 노동집약 산업중심의 도시구조로는 지식기반을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는 현대사회를 수용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깨닫고 새로운 도시전략을 모색하게 된다. 그것은 도시가 가지고 있는 최대의 문화자원인 안데르센을 중심으로 도시의 문화적 이미지를 구축하고 그것을 상품화하는 전략이었다.

오펜세에서는 안데르센과 도시관광은 박물관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오펜세는 전략적으로 한스 크리스찬 안데르센 박물관을 비롯하여 7개 중소규모의 도시박물관을 클러스터화하여 안데르센의 고향이자 박물관 도시로서의 이미지를 확보한다. 즉, 박물관시립클러스터(OCM)를 구축해서 전략적으로 확보된 통일된 미션을 달성하기 위한 박물관 서비스를 강화하고자 하였다.

또 다른 박물관으로는 안데르센의 생가와 우리나라 민속촌에 해당하는 퓨넨마을을 들 수 있다. 이 마을은 안데르센 시대(1805년~1875년)의 마을을 재구성하고 있다. 집, 농장(개, 돼지, 소, 말 등을 가축하고 있다), 물레방아, 방앗간, 술집, 학교 등 19세기 안데르센이 살던 오펜세의

전형적인 마을 하나를 옮겨놓고 있다. 개관시기 중 성수기라고 할 수 있는 7~8월에는 실제 사람들이 생활을 하며 연중 50만 명 이상의 방문객이 찾는다.

오덴세의 사례에서 안데르센이라는 예술가 한 사람의 문화예술의 창조적 생산이 도시와 나라의 문화가치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국제적 교류를 원활하게 하는 수단이 되기도 하며, 문화가 경제적 이익을 산출한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동시에 안데르센을 가공한 물리적 상품으로서의 박물관은 문화적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효과, 교육·문화 향유의 기회제공, 관광산업 활성화, 나아가 살기 좋은 도시의 이미지 확산, 인구유입 효과 등 도시발전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 국내 시티투어 사례

① 서울시티투어(<http://www.visitseoul.net/visit2006/>)

서울의 외국인 관광객 시티투어 역사는 70년대부터 시작되어 대한여행사와 (주)세방여행 등 2개사가 운영을 하다가 80년대와 90년대에 후발주자로 참여한 한화관광과 김스여행사 등 4개사가 운영을 해왔다. 이들 4개사의 시티투어 운영실적은 매우 저조한 수준이었고 외국관광객 참가자 수는 일일 차량 1대당 10명 미만의 매우 적은 인원이었다. 그 후 서울시티투어 활성화를 위해 서울시가 전세버스조합과 함께 오진관광, 세방교통, 삼봉관광, 한보관광 등 4개의 전세버스회사와 공동으로 서울시티투어사업부를 조직하여 1996년 11월부터 운영에 들어갔으나 지속된 적자와 경기부진 등의 이유로 1997년 7월부터 휴업하다가 폐업하였다. 1996년 11월부터 1997년 7월까지 2,880명의 관광객을 유치하였으나 버스 한 대당 하루 평균 3.1명인 상황이어서 정부의 재정지원 등 정책적 지원 없이는 운영이 불가능함을 보여준 사례이다. 이후 서울

시는 다시 서울관광의 명물로서 서울시티투어버스 활성화를 위해 1999년 4월에 서울도심순환 시티투어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운영자를 공모하였고 2000년 7월에 (주)허니문 여행사가 운영업체로 선정되었다. 2000년 9월부터 운영을 개시한 서울시티투어버스는 2003년 7월에 한정 면허 기간만료에 의해 제2기 운영사업자를 공모하여 (주)허니문 여행사가 다시 선정되어 운영하고 있다.

코스는 크게 도심순환코스(총 27곳 정류장 순환)와 고궁코스(총 11곳 정류장 순환), 야경코스(총 5곳 정류장 순환)로 구분되어 있으며 시티투어티켓만 제시하면 당일에는 한하여 박물관, 전시관, 공연장등을 무료로 입장하거나 할인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청계천이 새롭게 복원되면서 2층 버스(2층55명, 1층 18명)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차내의 전문관광가이드가 청계천과 청계천다리에 얽힌 역사적인 이야기와 문화관광안내를 하고 있다.

② 대구시티투어(<http://www.daegutour.or.kr>)

세계적인 섬유패션 도시를 지향하며 격조 높은 문화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대구광역시에서는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 2003년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등 각종 국제행사에 대비하여 지역을 찾는 국·내외 관광객에게 관광명소를 순회하는 편의를 제공하고 관광자원을 널리 홍보하여 관광도시로서의 이미지를 더욱 확고히 하기 위해 「대구시티투어」를 운행하게 되었다.

대구광역시 달서구 두류공원내에 위치한 대구시티투어의 시티투어버스는 4대로서 대구관광정보센터(8개 코스)와 동대구역(4개 코스), 대구 국제공항(3개 코스) 등 3개 지역에서 출발하며 주 7일 연중 운행하고 있다.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다. 전문 관광안내가

이드 2명을 보유하고 있으며 가이드가 탑승하여 관광지에 대한 소개와 안내를 제공하고 외국인 단체 탑승 시에는 영, 일, 중국어 통역안내 서비스도 제공된다.

③ 대전 시티투어(<http://baekjetour.com/djcity>)

대전시티투어는 대덕밸리의 과학시설과 시내·외권의 문화유적·시정·산업·문화시설을 안내도우미의 자세한 설명과 함께 매일 운행되는 테마형 관광프로그램이다. 대전을 찾는 모든 관광객들에게 짧은 시간에 다양한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많은 볼거리와 체험을 제공해 준다. 1999년 4월부터 운영을 시작한 대전시티투어는 월평균 이용객 인원이 약 3,000명 ~ 6,000명 정도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코스는 패키지형과 예약형, 맞춤형 3가지로 구분되어 있는데 패키지형은 요일별 정해진 코스를 매일 1회 정기운행하고 예약형은 일요일에 금산, 부여 등 인근지역 관광을 인터넷 및 전화상으로 사전예약을 받아 운행(A, B, C코스 중 1개코스)하고 있다. 맞춤형은 20인 이상 예약에 의거 시간 및 장소 선택하여 운행하고 있는데 시내권은 시정/산업탐방과 과학탐방, 문화탐방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시외권은 공주권과 부여권, 청주권, 금산권으로 구분되어 있다.

Ⅲ. 시티투어를 활용한 제주시 구도심권 관광활성화 방안

1. 제주시 구도심권 현황 분석

1) 구도심권의 역사·문화 자원

(1) 관덕정(보물 제322호, 1963년 1월 21일 지정)

구도심권의 중심지에 위치한 관덕정은 조선시대 제주지역의 대표적 인 정자로서 병사들을 훈련시키기 위하여 창건된 것으로, 좌우에 관아 시설이 위치해 있고 湖南第一亭(현재의 글씨는 고종 19년 박선양 목사의 글씨)이라 칭해지기도 하였다. 제주도의 지역적 특성에 맞게 원래 모습을 되찾고자 2003년 12월에 27억원의 예산을 들여 보수공사를 실시하여, 2006년 8월 18일에 준공되었다. 관덕정 벽화는 훼손이 심하여 자취를 알아보기가 힘들고 그림의 형상이 사라진 것은 물론이며 나무 판의 나이테 무늬가 다 드러나 있는 상태였으나 이번에 어느 정도 복원을 했고 현재는 관덕정 안까지 일반인 관람이 허용되어 실내 벽에 복원해 놓은 그림을 확인 할 수 있다(제주시, 2005; 제주특별자치도 역사문화예술 홈페이지 <http://culture.jeju.go.kr>를 참조하여 재구성).

(2) 제주칠머리당굿(중요무형문화재 제71호, 1980년 11월 17일 지정)

“제주 칠머리당굿”은 영등신에게 해녀채취물의 풍요를 비는 무속제로서 제주특유의 해녀 신앙과 생활민속이 담겨 있는 곳으로 육지에도 영등 신앙은 있지만 부락제 형식인 곳으로 행하는 곳은 제주만이어서 민속신앙 내지 민속예능면에서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칠머리당굿의 영등굿은 음력 2월 초하룻날 영등신을 맞이하는 ‘환영제’를 하고, 14

일날 영등신을 보내는 '송별제'를 하는데 매년 음력 2월 14일에 제주시 사라봉에 있는 칠머리당에서 공개행사가 열리고 있다(제주시, 2005; 제주특별자치도 역사문화예술 홈페이지 [http:// culture.jeju.go.kr](http://culture.jeju.go.kr)를 참조하여 재구성).

(3) 삼성혈(사적 제134호, 1964년 6월 10일 지정)

삼성혈은 高·良(뒤에는 梁으로 개칭)·夫 삼성의 시조인 高乙那·良乙那·夫乙那 세 神인이 솟아났다는 곳으로 제주시 이도1동 1313번지 외 7필지에 위치해 있다. 세 신인이 수렵생활로 가죽 옷을 입고 고기를 먹으며 살다가 오곡의 종자와 송아지·망아지를 가지고 온 碧浪國(벽랑국)의 세 공주를 배필로 맞이하면서 보다 발전된 문화인 농경정착생활 단계로 이행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신화가 전해 온다. 삼성혈은 세 神인이 출현한 '品' 字 모양의 3개 구멍을 말하는데 그 가운데 하나는 둘레가 6자이고 깊이는 바다까지 통한다고 하며, 나머지 구멍은 둘레가 각각 3자인데 오랜 세월이 흐름에 따라 흔적만 남아 있다(제주시, 2005; 제주특별자치도 역사문화예술 홈페이지 <http://culture.jeju.go.kr>를 참조하여 재구성).

(4) 제주목관아지(사적 제380호, 1993년 3월 31일 지정)

濟州牧의 관아라 할 때, 그 대부분은 濟州牧城(州城이라고도 함) 안의 관아시설을 지칭하며 현 사적지로 지정된 곳은 옛 大村縣 지역으로 조선시대에는 제주목의 관아가 집중 분포했던 곳으로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면 탐라국의 관아터로도 널리 알려져 있는 곳이다. 제주목의 관아시설은 觀德亭을 중심으로 좌우인 남쪽과 북쪽에 치중되어 있었으며 특히 좌측인 북쪽에는 주로 목사의 동헌과 관아시설, 우측인 남쪽(현

제주의료원 일대)에는 판관과 관련된 관아시설이 있었다. 그러나 제주 목의 관아지는 한말·일제시대를 거치면서 완전히 파괴되고 말았는데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제주도에 대한 일제의 식민통치는 제주인의 얼과 혼이 담긴 건축과 장소를 말살하는 데에서 가장 구체적으로 시작되었던 것이다. 이에 제주도는 1999년부터 목관아지의 복원을 시작하여 2003년 1월 22일 개관하여 현재 일반인에게 공개되고 있다(제주시, 2005; 제주특별자치도 역사문화예술 홈페이지 <http://culture.jeju.go.kr>를 참조하여 재구성).

(5) 오현단(제주도 기념물 제1호)

조선시대 제주에 유배되었거나 방어사로 부임하여 이 지방 교학 발전에 공헌한 다섯 분을 배향했던 옛 터로 五賢은 중종 15년(1520)에 유배된 충암 김정선생, 중종29년(1534)에 목사로 부임했던 규암 송인수 선생, 선조 34년(1601)에 안무사로 왔던 청음 김상헌선생, 광해군 6년(1614)에 유배된 동계 정은선생과 숙종 15년(1689)에 유배된 우암 송시열선생 등 다섯 분이다. 지금도 단내에는 5현의 유적으로 칠종7년(1856) 판관 홍경섭이 새긴 송시열선생의 「증주벽립」마애명과 충암 김정선생과 우암 송시열선생의 적려유허비, 글림서원이 복원되어 있다. 현재 경로당으로 사용되고 있는 칠근콘크리트 2층 8각 정자는 2006년 10월부터 철거에 들어가 조선시대 제주 출신 문인 고득중(高得宗)의 신주를 모시는 향현사(鄉賢祠)를 복원할 계획이다(제주시, 2005; 제주특별자치도 역사문화예술 홈페이지 <http://culture.jeju.go.kr>를 참조하여 재구성).

(6) 제주성지(제주도 기념물 제3호, 1971년 8월 26일 지정)

제주성은 탐라국 首府(수부)의 城郭(성곽)으로 오래 전부터 축성되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태종실록>에 의하면 1411년(태종 11) 정월에 제주성 정비를 명하였고, <세종실록지리지>에 의하면 성 둘레는 910보라 하였다. 또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의하면 석축으로 둘레 4,394척, 높이 11척이라 하였는데 이는 동쪽 산지천과 서쪽 병문천 사이를 축성한 규모를 말한 것으로, 이 때 성내에는 우물이 없고 嘉樂泉이나 산지천은 모두 성 밖에 있었다. 그 후 여러 번 증축과정을 거친 후에 둘레 1,424m, 높이 3.3m 규모의 성으로 완성되었으나 그 후 일제시대(1925-28년) 濟州港을 개발하면서 성벽을 헐어 바다를 매립하는 골재로 투석하였고 지금 남아 있는 곳은 단지 오현단 부근 격대 3개와 성벽 길이 85.1m, 높이 3.6~4.3m가 보존되어 있다. 이에 제주도는 제주성을 조속히 복원 정비하여 오현단과 연계한 사학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을 갖고 지난 1989년부터 주변토지 매입과 성곽보수·복원사업을 추진해서 그 일부인 162m를 복원하였고 제주 유일의 사학기관이던 굴림서원의 강당과 사당을 복원하였다. 그리고 2006년 10월부터는 제주 성지의 성곽 27m를 보수하고, 조선시대 제주 출신 문인 고득중(高得宗)의 신주를 모시는 향현사(鄉賢祠)를 복원할 계획이다(제주시, 2005; 제주특별자치도 역사문화예술 홈페이지 <http://culture.jeju.go.kr>를 참조하여 재구성).

2) 구도심권의 경관자원

(1) 용연과 용두암

한천 하구인 용연(龍淵)은 예로부터 취병담(翠屏潭)이라 하며 영주

12경의 하나인 용연야범(龍淵夜泛)의 절경지로 용두암(龍頭岩)은 제주 시의 대표하는 유명 관광지이다. 용연은 용이 놀던 자리라 해서 붙여진 이름으로 바닷물과 민물이 만나는 오색물결 빛이 아름답고, 울창한 숲과 조화를 이룬 절벽과 물속의 바위들의 모습이 수려하여 옛 선인들이 풍류를 즐긴 장소로 마애명과 함께 용연야범축제가 열리는 곳이다. 용두암은 이름 그대로 용이 포효하며 바다에서 막 솟구쳐 오르는 형상으로 바람이 심하고 파도가 거친 날이면 금세 꿈틀거리는 용이 하늘을 향해 오르는 듯하다. 바닷가에 높이가 10m나 되고 바다 속에 잠긴 몸의 길이가 30m 쯤 되는 용두암은 석양 속에서 가만히 이 괴암을 응시하고 있으면 정말로 용이 꿈틀거리는 것 같은 현상으로 인해 제주 관광의 상징처럼 유명한 곳이다(제주시, 2005;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정보 홈페이지 <http://cyber.jeju.go.kr>).

(2) 용연 구름다리

제주시에서는 용연 및 주변일대에 야간에 새로운 관광명소로 탄생시켜 나가고자 용연구름다리 재현 및 야간경관조명 시설사업에 국비를 지원받아 구름다리 공사에 15억원, 야간경관 조명공사에 8억원 등 총 23억원을 투입하여 2005년 4월에 완공되었다. 용연구름다리 공사는 동한두기와 서한두기를 연결하는 다리공사로서 구름다리는 지난 1967~86년 시설돼 있던 당시 구름다리 모양의 현수교를 재현하였다. 제주시는 용연구름다리·야간경관조명 조성사업이 완료돼 탐동~산지천~제주목관아지~해안도로와 연계된 야간관광벨트가 만들어져 그동안 침체됐던 야간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제주시, 2005;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정보 홈페이지 <http://cyber.jeju.go.kr>).

(3) 사라봉

높이 148m의 사라봉은 제주항 동쪽으로 바닷가를 접해 위치한 오름으로 제주시를 대표하는 오름이라고 할 수 있다. 오름 봉우리에 오르면 북쪽으로 망망한 바닷가가 눈앞에 펼쳐지고, 남쪽으로 웅장한 한라산이 바라다 보이며, 발아래에는 제주시의 시가지와 주변의 크고 작은 마을들이 그림같이 아름답고, 특히 저녁 붉은 노을이 온 바다를 물들이는 광경은 사봉낙조(沙峰落照)라하여 영주십경(瀛州十景)의 하나로 꼽힌다. 전체적으로 해송이 조림되어 숲을 이루고 있고 오름 전체가 제주시민을 위한 체육공원(사라봉공원)으로 조성되어 체력단련을 위한 각종 야외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며, 시민들이 산림욕 코스로도 많이 이용되고 있다. 정상에는 망양정(望洋亭)이라는 팔각정이 서있고, 북쪽에는 제주도기념물 제23호로 지정된 봉수대가 원형에 가깝게 보호되고 있으며, 봉수대 북쪽 산허리의 순환도로변에는 사라사(紗羅寺: 태고종)라는 절이 바다 쪽으로 자리 잡고 있다. 사라봉 북쪽 바닷가 벼랑위에는 제주도 최초의 유인등대(1917년 신축)인 산지등대가 있으며 남쪽기슭 모층사에는 순국지사 조봉호(趙鳳鎬)기념비, 의병항쟁기념탑, 金萬德義人(김만덕의 인) 묘비가 있으며, 남서쪽 기슭에는 충혼각이 있다. 사라봉은 일제시대에 연합군으로부터 일본 본토를 지키기 위해 제주도를 병참 기지화하려고 했던 갯도진지가 있으며 최근 문화재청으로부터 근대 문화유산으로 등록 예고되었다(제주시, 2005;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정보 홈페이지 <http://cyber.jeju.go.kr>).

(4) 산지천

산지천은 제주시내를 가로질러 흐르는 전형적인 도시하천으로 예로부터 산저천(山低川)으로 불리워졌으며, 영주10경 중의 하나인 산포조

어(山浦釣漁)의 장소이기도 하다. 탐라 순력도에는 건포배은(巾浦拜恩)이라 하여 선비들이 북쪽을 향해 배례를 하는 곳이기도 하였으며, 중국 피난선이 산지천에 정박하여 거주하면서 '파배기'등을 판매함으로써 중국음식이 널리 퍼지기도 하였다. 최근에 복원된 산지천의 하류구간은 전국적으로 생태하천 조성의 모범사례로 삼아 견학을 올 정도로 유명해 졌으며 여름철에는 음악분수를 중심으로 많은 시민들이 더위를 식히는 장소로 각광받고 있고 산지천 옆에 옛 중국피난선을 재현해 놓은 해상호가 전시되어 있다(제주시, 2005;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정보 홈페이지 <http://cyber.jeju.go.kr>).

2. 시티투어를 활용한 제주도 구도심권 관광활성화 방안

도시관광의 분석구조인 매력성과 상품성, 편의성, 시각성을 중심으로 시티투어를 활용한 제주도 구도심권 관광활성화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1) 관광자원의 매력성 확보

현대의 관광패턴은 보는 관광에서 즐기는 관광으로 변화하고 있음으로 역사·문화 자원의 활용도 관람 위주에서 동적인 활용으로 전환시킬 필요가 있다.

시티투어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먼저 매력적인 관광자원이 확보되어야 한다. 제주시 구도심권의 관광자원은 역사를 자원으로 한 역사·문화 자원, 사라봉 낙조와 산포조어 등의 경관자원이 있다. 역사자원을 동적인 자원으로 전환시키는 방안은 바로 재현이다. 관광객이 직접 재현하거나 연기자들이 재현하는 것으로 주변 역사자원에 재현 프로그램

을 마련하여 일정한 시간에 진행하도록 한다. 관덕정과 제주목관아지에서는 옛 제주목의 순찰병사 교대식, 신임목사의 부임, 목사 주연(酒宴) 행사 재현과 같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현실감있는 제주 역사를 보여 줄 필요가 있다. 또한 삼성혈에서는 옛 고·양·부가 활로써 거주지를 정했던 활쏘기 재현, 벽랑공주와의 혼인식 등을 재현할 필요가 있다. 제주민속박물관에는 신화를 접목하여 제주 신과 관련된 당 굿을 재현하고, 각종 신들의 가면과 복장을 입은 축제를 열도록 한다. 오현단과 제주성지에서는 옛 굴림서원에서 의 글방을 소개하고 향교에서는 차례 및 제사를 지내는 재현행사를 통해 제사의 의미와 뜻을 알리는 역할을 담당하도록 한다. 사라봉에는 칠머리 당굿을 재현하고, 용연에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용연야법을 재현하며, 산지천에서는 옛 귀양 온 선비들의 건포배운 행사를 재현하여 역사적 의미를 관광객들에게 소개할 필요가 있다.

야간관광자원으로 산지천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산지천에 공연장을 확대하여 매일 문화예술 공연을 하도록 하고, 야간 분수 쇼를 열도록 한다. 산지천 옆으로 길게 포장마차를 마련하여 제주 전통의 고기국수와 막걸리를 파는 야간 포장마차촌으로 유도한다. 또한 관덕정 앞에는 야간에 차량 통행을 금지시켜서 옛날 오일장을 재현한 야간 풍물시장을 개설하도록 하고 관덕정에서는 민요와 창을 공연하도록 한다.

(1) 박물관의 명소화

제주시내에는 국립박물관과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이 있는데 전시형의 박물관으로 서로 성격이 비슷하다. 안데르센 박물관에서 가장 인상 깊은 것은 박물관의 운영이다. 안데르센 박물관은 풍부한 전시품과 함께 안데르센 작품을 구연하여 들려준다. 도시민에게는 아이들의 놀이터

로, 외부관람객들에게는 활기찬 감동을 전함으로써 다시 가고 싶은 박물관의 이미지를 남긴다. 박물관은 어린이 동화작가를 기념하기 위한 박물관이라는 특성에 맞게 어린이들을 위한 적절한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있으며, 단순한 전시교육뿐만 아니라 이용자와 직접적인 커뮤니티를 통해 목적을 달성하고 있다. 또한 안데르센이라는 작가의 고향에 대한 관심에서부터 시작된 오펜세 방문은 안데르센 박물관에서 그의 인생관과 작품세계를 접한 뒤, 생가에서 어린 시절을 엿보고, 퓨넷 마을에 가서 그가 다닌 학교나 빵 가게, 풍차 등 그 시대를 통해 작품과 도시를 이해하게 된다. 이것은 안데르센과 그의 작품, 도시전체를 홍보하기 위해 오펜세가 구성한 전략적인 프로그램이다(김효정, 2005).

따라서 현재의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을 제주신화의 컨셉을 부여하여 제주민속신화박물관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제주의 다양한 신화자료를 수집하고 집대성한 후, 이미지화 하는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 세계적으로 희귀한 개벽신화 주인공인 대별왕과 소별왕 신화를 비롯하여 육지로 다리를 놓으려 했던 설문대 할망, 미모와 지혜가 뛰어났던 자청비 등 제주에는 1만8천의 신들이 있고 이들 신에 의해 많은 당들이 마을마다 있었다. 또한 개벽신화를 갖고 있으며 이들 신들이 임무 교대하는 '신구간'이라는 문화를 갖고 있다. 모든 신들에 대한 이야기를 연결하고 현대화하는 작업이 우선되어야 하며 이를 통한 애니메이션과 동화책 등을 제작하고 홍보할 필요가 있다.

제주민속신화박물관에는 세계 여러 나라의 신화도 모아서 제주신화와 비교하는 체험장을 마련하고, 각종 신화에 대한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이런 신화는 제주의 전통신앙인 당굿과 연결되어 지므로 마을마다 존재했던 당을 활성화 시키고 전통 민속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할망'(여신)과 '하르방'(남신)에 대한 이론을 정립하여 전

국제육대회에서 할머니처럼 분장한 설문대 할망이 아름다운 여신으로 재조명되고 이미지화 되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통해 박물관에서 매년 신화축제를 개최하고, 각종 신들의 탈과 복장을 한 가면축제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2) 산지천의 야간 명소화

싱가포르, 홍콩 등에서는 야간관광의 활성화를 통하여 도시관광을 발전시켜나가고 있지만 제주시의 경우 야간관광은 유흥업체를 제외하고는 별로 볼거리나 즐길거리가 없다. 산지천의 음악분수는 규모가 작고 유지관리비가 많이 소요되는 어린이용 분수로서의 역할밖에 하지 못하고 있다. 한 여름 밤에 어린이를 동반한 제주시민이 찾지만 관광객에게는 매력성이 떨어진다. 또한 산지천 주변도 관광객의 매력을 유인할 아무런 상품이 없다. 건천이라는 내천의 특성으로 인해 일명 '배고픈 다리'이다.

현재 있는 음악분수 자리를 중심으로 바람과 비를 피할 수 있는 전천 후 공연장으로 확장한 후 야간 문화공연을 개최하고, 야간 분수쇼를 연다면 야간의 매력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동문시장과 지하상가, 칠성로 상가가 밀집된 지역으로 연계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지역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이러한 관광활성화는 동문시장을 야간시장으로 전환시킬 수 있을 것이다.

2) 상품성 향상을 위한 시티투어 개발

(1) 문화축제의 규모화

영국의 에딘버러 페스티벌이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으로는 독립적인

상설 전문조직에 의해 수행되었고, 시장을 훌륭하게 개발하였고, 도시공간을 적절하게 활용하였으며, 장기간 개최하였고, 후원과 기부를 통한 자체재원을 마련하였으며,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이루어졌으며, 공정하고 엄정한 평가조사가 있었기 때문이다.(권순석, 2005; 강민주, 2005)

제주시의 경우 여름에 열리는 한 여름밤의 축제와 국제관악제가 있다. 대부분 탐동공연장과 문예회관에서 열리고 있기 때문에 도시공간을 제대로 활용하고 있지 못하다. 삼성혈과 용두암, 산지천, 사라봉 등 제주시의 문화자원이 풍부한 도시공간을 이용한 공연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특히 야외공연이라는 점에서 장마와 여름 우기를 피한 시기로 적절히 조정할 필요가 있다. 현재 성수기인 여름에 개최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관광비수기에 개최하여 관광객 증대 효과를 노려야 한다. 또한 음악 공연 위주의 축제를 연극, 뮤지컬, 미술, 콘서트, 도시 및 건축물 전시회, 코미디, 댄스, 어린이를 위한 공연 등 예술의 전 분야에 걸쳐 이루어질 수 다양화시킬 필요가 있으며 전국적인 예술제로 발전시킨 후 세계로 나갈 필요가 있다.

또한 신화축제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제주신화에 나오는 신은 1만 8천여 명의 신들에 대한 이미지 작업이 완성된다면 신을 형상화한 탈과 옷을 입고 제주시내를 지나가기만 해도 대규모의 축제가 될 것이다. 1만8천명은 제주시민과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접수를 받고 가면과 복장을 제공해주고 정해진 코스와 역할을 지정해주면 제주시 전체가 탐라의 신들로 가득 찬 축제장이 될 것이다.

(2) 시티투어 코스 개발

제주시 구도심권은 역사·문화 자원을 중심으로 한 역사·문화 자원 코스로 개발하여 공항에서 용두암, 탐동, 부두, 사라봉, 국립박물관, 민

속박물관, 삼성혈, 관덕정, 공항으로 이어지는 코스로 하고 공항에서 용담해안도로, 노형, 한라수목원, 도깨비 도로, 연동, 시외버스터미널, 공항으로 이어지는 신제주코스로 나누어서 운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두 코스를 모두 이용할 수 있도록 환승제도도 필요하다.

장기 코스인 서부 해안도로 코스와 동부 해안도로 코스를 개발하여 제주해안의 아름다움을 보여줄 필요가 있는데 여름철 피서객을 대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3) 시티투어를 활용한 편의성 확보

(1) 편리한 접근성 확보

현재 제주국제공항의 관광패턴을 살펴보면 관광객들이 공항에서 렌터카를 직접 전달받고 돌아갈 때도 공항에서 반납하고 돌아가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관광객은 제주시 구도심권을 방문할 기회가 없이 관광을 마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보다 많은 관광객들이 제주시를 관통하는 시티투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렌터카 회사와 연계한 시티투어 상품을 개발하여 렌터카 이용객들이 차량을 대여하거나 반납할 때 시티투어를 이용한 관광객들에게 할인을 해주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항에 밀집되어 있는 렌터카 회사들을 부두와 노형 방면, 일도지구 등에 분산 배치하여 그곳에서 차량을 반납하고 시티투어를 이용해서 공항에 도착하거나 공항에서 시티투어를 이용해서 그곳까지 가서 렌터카를 대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2) T-머니를 활용한 패스개발

관광카드 보다는 저렴하게 관광지를 이용할 수 있는 패스를 개발하

여 시티투어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현재 제주지역은 광역교통망으로서 모든 시내외버스에서 T머니 카드가 사용되고 있다. 이 카드로 모든 시내외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앞으로 다른 용도로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즉 T-머니 회사와 연계하여 제주시의 모든 관광지 출입구에 이 장치를 하도록 하여 관광지에서도 T-머니 카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T-머니 카드는 지금처럼 교통카드용 이외에 관광객들을 위한 관광객용으로 만들어 관광을 마치고 귀가하는 관광객들은 공항과 부두의 반납소에 반납하면 남은 금액과 사용한 일정금액을 되 돌려 주는 방법으로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서울과 부산 등지에서 교통카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시티투어의 요금체계를 명확히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3) 시티투어의 정제화와 홍보방안

관광자원의 매력성을 찾지 못해서 관광객 유인효과가 떨어졌기 때문에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의 시티투어도 처음에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처음 시도 후 호응이 적다고 해서 운영을 중지한다면 시티투어는 정착되지 못할 것이다. 1명이라도 탑승하면 운행함으로써 매력물로 발전한 일본의 예에서도 나타났듯이 정기적인 운영을 통해서 신뢰성과 함께, 관광객들의 시간 효율성을 높여줘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 국내의 시티투어 홍보는 별도의 시티투어 홈페이지나 자치단체 홈페이지의 일부에서만 제공되고 있다. 따라서 각 국내 공항의 출발 대합실에 시티투어 홍보 광고를 함으로써 제주공항에 도착하기 전에 시티투어에 대한 내용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모든 시티투어의 출발지를 공항과 부두로 함으로써 관광객들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시티투어의 시각성 향상방안

외국의 유명도시들은 특색있는 도시내 교통기반시설 및 교통수단의 개발을 통하여 접근성 제고는 물론 교통수단을 관광자원화하고 있다. 영국의 독크랜드 지역은 항만기능이 쇠퇴하자 재개발 추진과 함께 경전철을 건설하여 큰 성과를 보았으며, 이러한 경전철은 쾰리히, 베른, 바젤, 베를린 등 많은 도시에서 이미 운행 중에 있으며 도시의 국제관광기반을 구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시드니 메트로 모노레일은 1988년 7월 호주 200주년 기념으로 운행하기 시작하였으며, 타원형으로 순환하는 순환선으로서 패스의 종류는 Day Pass, Family Pass, Monorail Metrocard가 있다. 또한 메트로 경전철은 1997년 8월에 개통한 운송 시스템으로서 환경친화적이며, 미래 운송수단의 모델로 여겨지고 있다.

현재 제주시의 경우는 도시관광을 위한 교통수단은 전무하다고 하겠다. 특히 대중교통수단인 시내버스도 연이은 도산으로 차량 수와 노선이 대폭 축소되었고 운행간격도 길게 짜여져 있어서 관광객들에게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제주시의 주요 관광지를 순회하는 새로운 교통수단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친환경 2층 버스, 모노레일, 제주마를 활용한 마차, 자전거나 오토바이를 활용한 인력거 등을 도입하여 운행할 필요가 있다.

런던에는 Sightseeing Tour¹⁾와 London Pride, 파리는 대표적 시티투어로 파리비죤(Paris Vision)과 시티라마(Cityrama)가 있다. 이들

1) Original London Sightseeing Tour는 런던 관광을 만족시키기 위해 두 가지 다른 경로의 Hop-on Hop-off 버스를 제공한다. 티켓으로 24시간동안 투쟁이 없는 버스를 마음껏 이용할 수 있다. The Original Tour(Yellow)는 영어가이드의 생생한 설명과 더불어 런던의 주요관광지를 둘러볼 수 있는 관광이다.

시티투어들은 시내 곳곳의 명소를 연결시켜 주고 있으며, 반일권, 전일권, 2-3일권 등 다양한 티켓을 판매하고 있어 저렴한 가격으로 시내 곳곳을 다녀볼 수 있게 하고 있다. 또한 이들 시티투어의 코스에 대한 상세한 프로그램은 관광안내소나 호텔 등에서 제공된다. 가이드는 동승하지 않으나 2~3개 국어로 안내방송을 하고 있다.

시티투어에는 일반적인 버스보다는 2층 버스가 효과적이며, 모노레일이나 마차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구간마다 복합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공해와 관계가 없는 친환경적인 교통수단이 되어야 하며 가스를 이용한 버스로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여행의 피로를 풀어줄 수 있는 편안하고 안락한 좌석과 강한 이미지의 색상으로 차별화 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구도심권의 시티투어는 대부분 역사자원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전문안내원도 고령층을 활용하여 노인 취업 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외국어에 대해서는 자동 통역시스템을 마련해서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언어소통의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

IV. 결론

본 연구는 제주시의 주요상권이면서 제주도 성장의 기본 바탕이 되었던 구도심권이 인구이탈과 경기침체로 인해 고령화 현상과 도시 공동화 현상이 우려되고 있다는 점에서 도시재개발차원에서의 도시관광 활성화를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도시관광에 대한 개념을 이론적으로 정립하고 국내외의 도시관광에 대한 사례분석을 통하여 제주도 구도심권의 도시관광 매력성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토

대로 제주시 구도심권 시티투어 방안을 마련하였다.

도시관광 활성화를 통한 특색있는 시티투어 방안은 첫째, 관광자원의 매력성을 확보하기 위해 역사자원에 재현 프로그램을 접목시킨다. 둘째, 매력적인 시티투어 교통수단으로 친환경적인 2층 버스와 모노레일이나 경전철, 마차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구간마다 복합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셋째, 노인을 전문안내원으로 활용하여 상세한 설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자동 통역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넷째, 시티투어의 정례화로 관광객들에게 시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한다. 다섯째, 편리한 접근성으로 렌터카와 연계한 시티투어 상품 개발과 부두 및 노형 방면에 렌터카 대여소를 설치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체계적인 홍보를 위해 전국의 국내선 대합실에 시티투어에 대한 광고를 전개하며, 시티투어의 출발과 종착지를 공항과 부두로 정함으로써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추가적으로 대중교통에서 사용하고 있는 T-머니를 활용한 패스개발과 다양한 시티투어 코스를 개발함으로써 구도심권의 도시관광을 활성화 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에도 불구하고 도시관광의 외적요인인 관광객의 선호도 조사와 도시관광산업과 서비스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안고 있다. 다만 이러한 사례연구를 통해 보다 현실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실증연구가 추후에 이루어졌으면 한다.

참고문헌

- 강민주, 『마케팅 어드벤처2』, 미래의 창, 2005.
- 권순석, 「도시에서의 축제·이벤트」, 『도시관광개발사례연구』, 강원발전연구원, 2005.
- 김 옥, 「도시관광요소가 관광객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대구시티투어를 중심으로-」, 경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 김민수, 「도시관광활성화를 위한 장소마케팅 전략」,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 김병문, 『관광자원학』, 백산출판사, 1990.
- 김일룡, 「도시관광 활성화를 위한 개발체계 탐색」, 서라벌대학 논문집, 1983.
- 김향자·유지운, 「한국의 관광도시 육성방안」, 한국관광연구원, 1999.
- , 「도시관광 진흥방안 연구」, 한국관광연구원, 2000.
- 김효정, 「문화예술자원의 산업화와 도시관광」, 『도시관광개발사례연구』, 강원발전연구원, 2005.
- 노은정, 「도시관광의 관광정보 연구-외래관광객을 대상으로」, 경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 박경렬, 「관광목적지로서 도시관광이미지 구성요인 도출 및 측정척도 개발」,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 박대한, 「서울시티투어 이용객의 만족도 연구」,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 박석희, 『신관광자원론』, 일신사, 1994.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서울시 관광개발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시, 1995.
- 서태양, 『관광자원론』, 대왕사, 1994.
- 신동주, 『지역관광개발론』, 대왕사, 2003.
- 이명수, 「외국인의 한국관광에 대한 불만족요인에 관한 연구」, 서경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5.
- 이진희, 「1·3차 산업을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21세기 비전 남제주 군민 대토론회』, 남제주군, 2005.

- _____, 『도시·건설·교통분야, 제주특별도 2단계제도개선 의견수렴을 위한 도민 대토론회』, 제주발전연구원, 2006a.
- _____, 「북제주군의 지속가능한 지역개발에 관한 연구」, 사회발전연구 제16권, 제주대학교 지역사회발전연구소, 2000.
- _____, 『장소마케팅』, 대왕사, 2006b.
- 전영옥, 「역사자원 중심의 도시관광」, 『도시관광개발사례연구』, 강원발전연구원, 2005.
- 정근화, 「외국인관광객의 서울시티투어 만족도에 관한 실증적 연구」, 세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7.
- 정재선, 「도시관광개발 활성화 방안」, 『관광정보』253호, 한국관광공사, 1994.
- 제주시, 『제주시 50년사』, 2005.
- 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제주시 상권분석』, 2006.
- 한국관광공사, 『향토음식 관광상품화 방안』, 1993.
- Christopher M. Law, *Urban Tourism*, 이후석 역, 백산출판사, 1999.
- Gray Line, *Gray Line Marketing Plan*, 1995.
- Jansen-Verbeke, M., and van de Wiel, E., Inner-city tourism: Resources, Tourism and Promoters, *Annals of Tourism Research*, 13(1), 1986.
- L. van den Berg, J. van der Borg and J. van der Meer, *Urban Tourism*, London: Mansell Publishing Lit, 1995.
- Murphy, P. E., Tourism management using land-use planning and landscape design the Victoria experience, *Canadian Geographer*, 24, 1985.

Abstract

A Study on the Revitalization of Old Downtown in Jeju City

Lee, Jin-hee* · Kim, Gu**

Cities are like living creatures, the fact that both cities and organic creatures undergo the process of birth, growth, decline and extinction can not be denied.

Jeju city have accomplished a sharp growth, while he has made a distinguished growth in their size and capacity. Old downtown areas in Jeju city has been developed from Korea Dynasty, but rapidly grew in 1970s and is still developing. However, there are losing their substance and getting retrogressed in their inner part and not many facilities which can attract residents and tourists.

There lies the reason of this study, to provide suggestion to revitalizing strategy and policy in the futu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a guideline program in old downtown areas by applying the concept of City Tour. For this, the study will develop for city revitalization by applying soft phase of urban tourism. The background of urban tourism introduction and case studies were discussed.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 that the concept of revitalizing program

*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Tourism Development, Cheju National University

** Team Leader, Research Institute for Regional Government & Economy of Korea

should be applied to old downtown areas in Jeju city in order to increase the number of visitors.

Key Words

Old downtown areas, City Tour, Jeju city, Revitalization

교신: 이진희 690-756 제주시 아라1동 1번지 제주대학교 경상대학 관광개발학과
(E-mail: jinhei@cheju.ac.kr 전화: 064-754-3172)

교신: 김구 제주시 연동 1486-2 한국자치경제연구원
(E-mail: rdkg@naver.com 전화: 018-693-0058)

최초 투고일 2006. 12. 21

최종 접수일 2007. 1. 29